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제2회 정기연주회

K-MUSE SOCIETY

2nd Annual Concert
EPISODE II



PIANO
박규연
Park Kyu-Yeon



VIOLIN
박찬호
Chanho Park



Cello
강하연
Hayeon Kang

2024. 12. 12. (목) 오후 7:30



동우아트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항1길 4 (2층)

주최



군산신문사

주관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후원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대학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063)469-4391



군산신문사 (063)446-4171

전석 초대

후원



전북은행 1013-01-5470852 케이뮤즈소사이어티

음악의 기쁨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위한 발걸음에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새롭게 결성된 실내악단인 ‘케이뮤즈 소사이어티’가 벌써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뮤즈 소사이어티’는 국립군산대학교와 군산시립교향악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사회의 대표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실내악단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고, 나아가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K-Muse Society)의 K는 독일어 ‘Kammer Musik’에서 유래한 실내악을 뜻하며, 우리 군산, 한국 (Korea)을 의미합니다. ‘뮤즈’는 예술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름 아래, 저희는 케이뮤즈의 음악을 군산은 물론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 활발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도 그 일환으로, 군산신문사의 소중한 후원 아래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 쇼스타코비치, 피아졸라,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케이뮤즈 소사이어티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군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악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위한 발걸음에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일동

2024년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며
잘 마무리 하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 이웃도 잠깐 돌아보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신문사 고진곤 회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한 세모의 길목에서 이렇듯 저희 군산신문사 송년음악회를 빛내주시고자 발걸음을 옮겨주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 해의 끝자락 12월의 숙연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과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동호인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2024년도 갑진년 푸른 용의 힘찬 진취적 기상으로 매사 적극적이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이번 군산신문사 송년음악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연으로 박규연 군산대 음악과 교수와 코나힌 올렉산드러, 스키바 테타냐 군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연주자가 결성한 ‘케이뮤즈 소사이어티’와 함께 주옥같은 연주들로 클래식의 향연을 느끼시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최고 시인 중 한 사람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음악은 인류 공통의 언어’라 정의했습니다. 비록 각자의 주관과 철학이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두 하나되는 이해와 신뢰의 귀한 시간이 돼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고 분주함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음악회가 연말연시를 따뜻하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길 바라고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이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가면서 또다시 꿈꾸고 희망을 품게 하는 2025년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입니다. 뱀은 타고난 지혜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내년 을사년의 해에도 뱀의 지혜와 평정심으로 큰 꿈과 소망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며 잘 마무리 하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 이웃도 잠깐 돌아보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년째 전통을 이어오는 군산 대표 지역언론사인 군산신문사는 지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직원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축사를 갈음합니다. 오감을 만족하는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의 아쉬움을
희망으로 채우고
오는 2025년의 설렘을
꿈으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군산시민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마무리하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세밑의 길목에서 군산신문사 송년음악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군산신문사가 마련한 연주회의 주인공인 ‘K-뮤즈 소사이어티’는 군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송년 음악회가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비결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군산신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론 신문사인 ‘군산신문사’와 빼어난 연주기량과 낭만주의 감성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K-뮤즈 소사이어티’가 함께 엮어나갈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질 송년 음악회는 크리스마스와 송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음악회를 통해 가는 2024년의 아쉬움을 희망으로 채우고 오는 2025년의 설렘을 꿈으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년음악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더욱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훈훈한 선율의 감동을 전해주기 위한 제2회 K-Muse Society 정기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이 특별한 송년음악회를 준비해주신 군산신문사 고진곤 회장님, 최은성 대표이사님과 K-Muse Society 박규연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음악회는 단순히 한 해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회는 그 언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음악회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더욱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군산은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을 겪었지만, 여러분과 같은 문화 예술인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신문사와 K-Muse Society가 이러한 송년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더욱 활발히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송년음악회를 위해 애써주신 군산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과 K-Muse Society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제2회 정기연주회

PROFILE



PIANO 박규연 Park Kyu-Yeon

- 오스트리아 비인 시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수석 졸업
-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체임버홀 비롯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 초청 독주회, 두오 리사이틀, 실내악 등 국내외에서 수백여회 연주회
- 전주시향, 제주시향, 정읍시향, 전주챔버,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군산시민오케스트라, 광주 여성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바흐챔버플레이어스, 광주대학교카톨릭오케스트라등 유수 오케스트라와 초청 협연
-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방문연구교수 역임
- 다수 피아노 지상공개 레슨집 출간 (일송출판사)
- 현)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교수 / 자율전공대학장 / 평생교육원장
-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및 호남, 제주지부 부회장 ·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이사
- 국제피아노음악협회 이사 · 아르모니아 예술감독



VIOLIN 박찬호 Chanho Park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1년 재학 중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과 과정 조기입학 및 졸업
- 미국 커티스 음악원 졸업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 부산음악콩쿠르 최연소 1위 및 전체부문 대상
- 부산시장상,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상 수상
- 중앙음악콩쿠르 최연소 1위
- 예원, 서울예고를 빛낸 음악인 상 수상
-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악장 역임
- 현)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단원, 트리오 솔 멤버, 전북대 출강 중



Cello 강하연 Hayeon Kang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음악원 7년 수료
- 예원, 서울예고 연세대학교 4년 장학생 졸업
- 독일 예센 국립음대 석사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Folkwang Preis 1등, Grand Prize Virtuoso Competition 1등
- 수원시향, 전주시향협연 등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세종문화회관, 연세 금호아트홀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 충북도립교향악단 객원수석 역임
- 현) 뉴욕예술원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전북음악아카데미 출강, 서울솔리스트 앙상블 수석단원, 전주예중, 전주예고 출강, 트리오솔 멤버

케이뮤즈 소사이어티
제2회 정기연주회

PROGRAM

Another Day of Sun _ Sound track from 영화 '라라랜드'

Justin Hurwitz

Jazz Suite No.2 Waltz _ 재즈모음곡 중 왈츠 2번

Dmitri Schostakovich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1906 ~ 1975

Humoreske 유머레스크 **Op. 101, N0.7**
Slavonic Dance Op.72, No.2 in E minor
_ 슬라브 무곡 2번 마단조

Antonín Dvorák
안톤 드보르작
1841 ~ 1904

Libertango _ 리베르탱고
Invierno Porteño _ 겨울
Primavera Porteña _ 봄
from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_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Astor Piazzolla
아스투르 피아졸라
1921 ~ 1992

INTERMISSION

'Dumky' Piano Trio No. 4 'Dumky'
in E minor, Op.90
_ '덤키' 피아노트리오 4번 마단조

1. Lento Maestoso—*Allegro Quasi Doppio Movimento (Attaca)*
2. Poco Adagio—*Vivace Non Troppo (Attaca)*
3. Andante—*Vivace Non Troppo*
4. Andante Moderato—*Allegretto Scherzando – Meno Mosso*
5. Allegro
6. Lento Maestoso—*Vivace*

Antonín Dvorák
안톤 드보르작
1841 ~ 1904

ARR. FOR VIOLIN, CELLO & PIANO

‘33년 역사’ 지역 대표 언론 군산신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신문은 정론직필의 자세로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군산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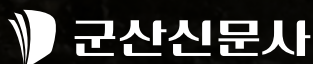
2024 군산오픈 클럽대항 골프대회



2023 군산신문사 송년음악회



2024 새만금 미스 벚꽃 선발대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2길 3(조촌동) 3F
T. 063-446-4171 F. 063-446-4176